

국어(한문 포함)

문 1. 문장에 쓰인 부호가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어머님께 말했다가 — 아니, 말씀드렸다가 — 꾸중만 들었다.
- ② 낱말(單語)은 띄어 쓰되, 토씨(助詞)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③ 시골 외삼촌댁에는 개·고양이, 오리·닭 등의 동물들이 많이 있었다.
- ④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 2. 25.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 2. 밑줄 친 표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 ① 삼 년 간 계속된 가뭄으로 전답이 완전히 肥沃해졌다.
- ② 그는 언행이 浮薄하지만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
- ③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褒貶할 필요는 없다.
- ④ 그의 동선을 치밀하게 계산한 뒤에야 겨우 그와 遭遇할 수 있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 ~ 문 4]

소의 뿔은 벌써 소의 무기는 아니다. 소의 뿔은 오직 안정의 재료일 따름이다. 소는 사람에게 얻어맞기로 위주니까 소에게는 무기가 필요 없다. 소의 뿔은 오직 동물 학자를 위한 ㉠ 표지이다. ‘야우(野牛) 시대에는 이것으로 적을 공격한 일도 있습니다.’ 하는, 마치 폐병의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그 추억이 애상적이다.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 더 한층 ㉡ 겸허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가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자인가보다.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하였으리라. 그러나 오 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한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食物)을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오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해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지를 좀 생각해 본다.

— 이상, ‘권태’ 중에서

문 3.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멀다.
- ② 소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③ 대상을 통해 서술자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④ 대상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문 4.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標識 ② ㉡ 謙虛
- ③ ㉢ 反芻 ④ ㉣ 捲怠

문 5. 밑줄 친 ‘손님의 77%’가 범한 오류와 유형이 가장 유사한 것은?

손님이 별로 복잡대지 않는 가게인데도 사람들은 복잡댄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작은 가게에 손님이 세 명뿐인 시간이 전체 영업시간의 75%, 손님이 열 명 있는 시간이 25%라고 하자. 그곳이 작은 가게여서 손님이 10명 있으면 붐빈다고 생각하고, 3명뿐이면 손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손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비율로 보아 13명 가운데 10명꼴로 붐비는 시간에 가게에 있었으므로 손님의 77%가 ‘이 가게는 붐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 ① NaCl은 Na와 Cl이 결합한 것이다. NaCl은 맛이 짜다. 따라서 Na도 맛이 짜고, Cl도 맛이 짜다.
- ② 지은희 선수가 한국 골프 선수로는 네 번째로 US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따라서 한국 여자는 모두 골프에 소질이 있다.
- ③ 화성에서 식물을 발견할 확률은 1/2이다. 동물을 발견할 확률도 1/2이다. 따라서 화성에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생명체를 발견할 확률은 1/2 + 1/2 = 1이다.
- ④ 1750년까지 인간이 축적한 지식의 양은 예수가 태어났을 때보다 두 배 많아졌다. 그것은 1900년에 다시 두 배, 1968년에 다시 두 배가 되었다. 지식의 양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누구도 지식의 발전을 따라잡기 어렵다.

문 6. () 안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그 댁이 잘 돼야지. 그 댁이 잘 돼 자손이 창성하구 형세가 늘어나구 해야 우리두 잘 되지. (㉠)구.”
- (나) 이런 일이란 떡 먹은 입 쓰다들듯 하고 (㉡) 해도 잠간 사이에 소문이 파다해지게 마련인데 횡재를 한 당사자가 항아 장사 물건 자랑하듯 하니 아는 데는 퐁파리요 귀가 초롱같이 밝은 서리청의 이속(吏屬)들이 단 하루를 모르고 지나칠 리가 없었다.
- (다) (㉢)던가. 살리타(撒禮塔)가 죽었다는 소식은 곧장 강화 조정에 전해지고 며칠 후 처인성에는 일군의 병사들이 당도했다. 강화에서 보낸 병사들이었다. 김윤후는 병사들로부터 왕이 부른다는 전갈을 받았다.
- (라) ‘(㉣)’는 인색하고 욕심 많은 사람을 빗댄 말이고, ‘산지기 눈치 보니, 도끼 빼앗기겠다.’는 눈치를 보아서 형편이 틀렸으면 일찌감치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 ① ㉠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간다
- ② ㉡ 아닌 보살을 한다
- ③ ㉢ 말 꼬리에 붙은 파리가 천리를 간다
- ④ ㉣ 산지기가 도끼 밥을 남 주랴?

문 7.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런 어처구니를 당하고 보니 한숨만 나온다.
- ② 왜 불안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자세로 그러고 있어?
- ③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아주머니도 참 주책이서.
- ④ 알량하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했다.

문 8. 밑줄 친 ‘이런 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노라고 꼭꼭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 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이십 명 관 앞에 와 꿍벅거렸다. 그리고 무어라고 지껄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 참의도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 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 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험…….”

하더니 조사(弔辭)를 하였다.

“나 서 참의일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사(豪奢)야…… 호살세.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문 이런 호사를 해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 아무턴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 참의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흐흑…….”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 참의와 박희완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 이태준, ‘복덕방’ 중에서

- ①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 ② 조객들 가운데 울음을 삼키노라고 꼭꼭 하는 사람도 있었다.
- ③ 안경화의 뒤를 따라 한 이십 명이 관 앞에 와 꿍벅거렸다.
- ④ 서 참의(參議)가 조사(弔辭)를 하였다.

문 9.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향 마을의 고샅은 비좁고 지저분했다.
고샅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 ② 그들은 마을길을 잡지 않고 에움길로 갔다.
에움길 :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 ③ 가풀막을 내려올 때 나는 발을 헛디더 넘어질 뻔하였다.
가풀막 : 몹시 가파르게 비탈진 곳.
- ④ 난달이었던 별채 주변을 사랑채 담장과 잇달아 담을 쌓았다.
난달 : 길이 여러 갈래로 통한 곳.

문 10. <보기>의 밑줄 친 ‘깨달음’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글은 강희맹이 젊어서는 벼룩을 꺼리지 않다가 나이 들어 벼룩을 꺼리게 된 까닭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소소한 일상의 체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나는 젊었을 때 잠이 많았다. 그래서 유시(酉時)에 잠자리에 들어 인시(寅時)에 일어났다. 그때는 누우면 곧장 잠이 들어서 죽은 송장마냥 온몸의 기운이 멈추고 호흡이 희미해 누가 불러도 들리지 않고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추위도 추운 줄 모르고 더위도 더운 줄 몰랐다.

기운이 고요히 가라앉고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이 잠잠해, 제 아무리 천둥 벼락이 이마를 지나치고 물불이 앞을 막아도 두려워할 줄 몰랐다. 하물며 하찮은 벌레에 지나지 않는 벼룩 때문에 근심했겠는가! 이것은 내 기운과 감정이 잠과 더불어 한가지여서 뜻이 나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운과 감정이 잠과 한가지이기 때문에 바깥의 사물이 해를 입히지 못하고, 뜻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는 일 이외에 다른 무엇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근심과 걱정이 가슴에 가득 차 정신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전에 내게 해를 끼치지 않았던 일도 때때로 나를 덮쳐 해를 입히는 것이 너무도 심하다. 그래서 마음이 한번 고통을 느끼면 마침내 원수처럼 여겨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어하고 교묘하게 피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한다. 기운과 감정이 온전하지 않아 뜻이 이미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물이 나를 찾아와 해를 입히고, 온갖 사물이 내 근심과 걱정이 된다. 온전히 잠에만 빠져도 바깥의 사물이 감히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 기운과 감정을 잘 다스리고 길러 닦는 데 있어서랴!

- ① 나의 의지에 따라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 ② 편안한 잠은 기운과 감정을 길러 닦는 방법이다.
- ③ 근심과 걱정은 나의 기운과 감정에 달려 있다.
- ④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

문 11. ㉠ ~ ㉣에 들어갈 문법 용어로 옳은 것은?

‘미친짓’은 틀린 표기이다. ‘미친 짓’으로 써야 맞다. ‘짓’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행위와 행동을 말하므로 ‘미친 짓’은 ‘우아한 부인’과 같이 (㉠)와 (㉡)의 자연스러운 통사적 결합이다. 따라서 ‘미친 짓’을 하나의 단어 즉, (㉢)로 인정하여 ‘미친짓’으로 붙여 쓸 이유가 없다. 다만, ‘짓’이 (㉣)에 연결되어 ‘눈짓’과 같이 쓰일 때에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여 붙여 쓴다.

- | | ㉠ | ㉡ | ㉢ | ㉣ |
|-------|-----|-----|-----|---|
| ① 형용사 | 명사 | 합성어 | 명사 | |
| ② 관형사 | 명사 | 파생어 | 대명사 | |
| ③ 형용사 | 대명사 | 합성어 | 명사 | |
| ④ 관형사 | 대명사 | 파생어 | 대명사 | |

문 18. ㉠ ~ ㉤ 중 다음 <보기>가 들어갈 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또, 이 논란은 단순히 외래문화나 전통문화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보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해체되어야 하는가? 한국 사회 변동 과정에서 외래문화는 전통문화에 흡수되어 토착화되는가, 아니면 전통문화 자체를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국 사회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뉘어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 그러나 전통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견해 차이는 단순히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한 세기 이상의 근대화 과정을 거쳐 왔으며 앞으로도 광범하고 심대한 사회 구조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 이런 변동 때문에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전통문화의 변질을 어느 정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고,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 또한 문화적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근대화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끊임없는 변화를 다 같이 필요로 하며 외래문화의 수용과 토착화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근대화에 따르는 사회 구조적 변동이 문화를 결정짓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변화 문제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나 양자택일이라는 기준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문 19.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맞는 것은?

- ① 보리의 생장에는 겨울철 맑기 [말끼]가 중요하다.
- ② 한글 자모 순서에서 ‘ㄴ’ 다음에는 ‘ㄷ’이 [디그디] 온다.
- ③ 당시 학계에는 일원론보다는 이원론 [이 : 원논]이 우세하였다.
- ④ 오전에 맑다 [말따]가 오후에 차차 흐려져 밤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문 20. 다음 설명 중 국어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회계’와 ‘연도’가 결합된 합성어는 ‘회계년도’로 표기해야 한다.
- ② ‘거시기’는 무엇을 꼭 집어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사용하는 표준어이다.
- ③ ‘종로 2가’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Jongno 2(i)-ga’가 된다.
- ④ 브라질의 도시 ‘Rio de Janeiro’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면 ‘리우데자네이루’가 된다.